

부활 제 7 주일
(예수승천 대축일)

기도서 P. 293 B해

- 제1독서(사 도 1. 1-11)
- 제2독서(에 페 1. 17-23)
- 복 음(마 르 코 16. 15-20)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칼 문



승리자 예수

이 재 후 신부

부활시기를 마지막 보내는 승천주일을 맞아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살펴보자.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인 죄악의 마지막 권세인 죽음마저 격어 누르시고 죄의 세력을 분쇄 하셨다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의 승천 역시 이러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죄악과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개선 장군으로 영원한 안락치인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 가신다는 것을 말해준다.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과 그때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기 위해서 “마침내 구름에 싸여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사도 1: 10)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올라가시는 모습을 얼빠진 사람처럼 바라보는 제자들을 꾸짖으며 “승천하신 저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사도 1: 11)고 말하고 있다.

이 소박한 몇 마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먼저 구름에 싸여 하늘로 가겠다는 표현을 볼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한을 초월 하신분임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인간 조건을 벗어났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사신다. 그리하여 언제고 어찌서고 나타나실 수 있고 항상 계시는 분이심을 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계시를 말한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의식할수 없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영광중에 다시 오실것을 다짐하신다.

승천 하시기 전에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재림을 약속 하시면서 막중한 사명을 주신다. 그 사명이란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복음 선포를 계속하는 것이며 성사를 기행하라는 거룩한 위탁이다. 오늘에도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을 해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즉 세상 곳곳으로 종말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을 보내시어 이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다.

사람이신 하느님 모습을 더 이상 볼수 없게 되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에게도 그 종말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보장되었음을 믿고 바라는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세상이 고통스럽고 슬픔으로 가득차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일지라도 기쁨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수 있다. 세상의 행복이 잠시뿐 지나가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때에도 우리는 그 아쉬움을 이길수 있다. 죽음이 가져다 주는 불안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 세상이 주는 슬픔과 기쁨에도 비교할수 없는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이신 예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면서 믿고 사랑하는 생활이 그리스도 신자의 생활이다. 승천하여 보이지 않는 예수를 마치 보는것처럼 믿고 행동하고 있는 나의 삶인지 우리 각각 살펴 보아야 하겠다.

<남원 천주교회 주임신부>



“내 맘이여...”

가격위반 행위나 정부미를 일반미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온 농수산부가 정부미를 일반미로 속여 팔아 왔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농수산부 차관은 “위장판매한 정부미는 3만가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위는 “시중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을뿐 국민을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물의를 빚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5월 19일자 일간지 보도)

도대체 이 행위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그냥 웃고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야당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시장 잡배나 하는 타락된 상행위”라고 비난하며, “이같은 속임수 행정을 저지른 것은 정책부재의 한계를 넘은 도덕성 결여”라고 비난하고, “정부당국은 스스로 저지른 파멸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귀추가 주목된다.

공화당 지구당 개편 대회가 속조여중고생으로 구성된 관현악단의 주악속에서 진행되었다. (5월 22일자 일간지 보도)

학생동원에 따르는 교육적인 문제때문에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다. 전국 이래의 짧은 역사속에서 우리는 무질서한 학생동원의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학생들이 학업을 제쳐 놓고 자리메구기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얼마나 큰 폐단이었던가? 따라서 국무총리의 지시는 당연의 도를 넘어 절실히 요청되는 조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조치가 가끔 지켜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속초의 사정이야 그 기사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저간의 사정은 알 길이 없으나, 눈썰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내 맘이다”하는 식의 사고방식이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숲 정 이 산책



예수가 라사대 「내가 점도다」



사 제 서 품 50 주 년

1979. 5. 25

김 영 구 신부

오늘 이런 자리가 있을수 있도록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에게 이처럼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저의 사제서품 50주년을 맞이한 이 조촐한 자리에 참석해주시는 존경하옵는 주교님을 비롯, 여러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모든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년이던 강산도 변한다고들 하는데 제가 서품을 받은 후로 지금까지 50년의 세월이 흐른지금, 그동안 자신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때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다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고 죄스러워 주님을 우러러 뵈올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본당을 맡아 일을 해보았고 다소의 직에도 있었으며, 지금과 같이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볼때 저는 나름의 많은 걸 느낄수 있었습니다.

여러 신부님들, 저는 이렇게 어쩔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많은 젊으신 신부님들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사업에 이취나가시는걸 볼때 기쁘기 이룰데 없으며 한편 부끄러운 생각조차 들곤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지금까지 제가 성직 생활을 해오는 동안 느꼈던 몇가지 생각들인데 그 제목을 "성직자의 심득(聖職者의心得)"이라고 붙여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직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맡고 있는 성당에서 일하고 하느님을 대하여 많은 신자들에게 봉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우리 성직자들은 하느님께로 받은 이 성직에 감사할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이 전에는 꾀박 자요, 폭행자 였지만 우리 주께서 나를 충성스러이여겨 감히 받을수 없는 성직을 주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은혜라하며 감사했습니다. 이런것을 생각해 볼때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서 주님께서서는 무엇을 바라시고 성직을 내리셨을까 생각하니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것도, 성직을 받은것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면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필시 충성을 바라시고 성직을 주셨을텐데, 이렇듯 충성조차 부족하니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육신이 다 할때까지 사명에 전력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바르, 우리 성직자들이 꼭 마음속에 두고 성직을 수행해야 할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직을 주실때는 우리가 어떤 권력이나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천재의 두뇌를 가져서도 물론 아니라고

됩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요즘 현실에 있어서 지식이 없어도 신부는 될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재산이 없어도 더욱 많은 난관을 거처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임무를 대리 수행하는 성직자는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직자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모든 성도와 신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성직자는 교회의 지도자이니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부도 역시 자신을 위해 행하지 말고 신자들과 성당을 위해 행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모든 신자들의 본이 되는 위치에 세우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주님의 양들에게 맛있는 풀을 먹이고 길을 안내하여 편안히 나아갈수 있도록 가시땀불을 해쳐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항상, 많은 양들을 지켜주는 목자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회장님들과 상의하여 불화를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목자는 양이 아플때 잠을 자지않고 돌봐주며, 추울때 몸으로 덮어주곤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님들은 신부님과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 전도하고, 성당의 발전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로써 또한 신자로서 교회를 그리스도 이전에 순결하게 바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결코 제가 이처럼 행하여서 여러 신부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뜻을 아들에게서 이루어고 하듯이 저는 여러 젊은 신부님들께 제가 성직을 맡아오며 행하지 못한 몇가지를 부탁드렸을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기록한 5월 성모성일에 성모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께 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김영구(베드로) 신부님의
사제서품 금경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9. 5. 25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수도자 및 평신도 일동

□ 독사·뱀 물린데 백말 백종치료 완

복 사 폐 차 장

대표 송 주 원(노펜조)

전화 ㉠ 2365

전주시 금암동 태빙보링(옆)

◆ 고급 숙녀복·쇼킹 패션 코너

제 일 모 직 라 보 데

김 형 택(바오로)

□ 전주시 중앙동 3가 67-10

(우체국 후문 앞)

전화 2-7404

□ 교구 사제총회

“지구 재조정 및 교구 재산관리 자문위 구성키로 7·6사태 해결방안, 교구 정평위에 일임”

교구 사제총회가 12시간에 걸친 진지한 회의끝에 결정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지구 재조정...현행 5개지구를 7개지구로 늘려 지역간의 원활한 접촉 시도.
- ② 교구창설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구성...외적 행사보다 내적 새신을 기할 때 쾌 모색으로 방향도 설정.
- ③ 교구 재산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관리국 산하 재산관리 전문인 채용...인선은 참사회에 일임.
- ④ 7·6사태에 대한 자세...교구 정의평화 위원회에 일임.
- ⑤ 군중신부 입대 기준...서품후 만 2년이상된 사제중 최연소자로(입대날자 기준).

그리고, 교구장이신 김재덕 주교님은 지시사항을 통해서 “본당의 제반 사업 추진은 반드시 지구장을 통해 참사회에 사전 제출하여 허가받도록” 당부하시고, “사제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능한한 매주 월요일은 휴무하여 자유시간을 갖도록” 사랑에 넘친 간곡한 권면의 말씀을 하셨다.

□ 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7·6사태 해결위한 ‘모종의 행동지침 결정, 농민회 활동 계속 지원, 인권 강연회 계속’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는 당면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79년도 제4차 총회를 지난 23일에 가진바 있다. 정평 상임위원회는 그간의 경과보고를 통해 ① 7·6사태에 대한 사제총회의 의결사항, ② 7·6사태 해결을 위한 도지사와의 대화(면담)시도 실패 및 22일 오후 6~7시 사이의 상황 등을 위원들에게 소개했다. 이어 현안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협의한 바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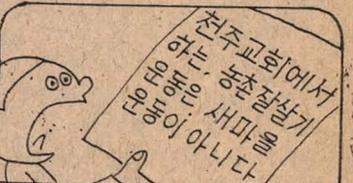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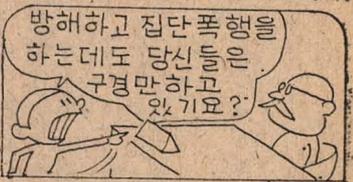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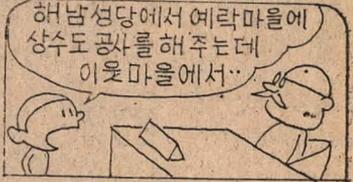
-〈7·6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① 교우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간의 제반 상황 설명(숲정이), ② 사제총회의 위임을 받은 정평위의 입장과 태도를 밝히는 성명서 발표, ③ 7·6사태시 발표되었던 사제단과 평협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서명운동, ④ 인권강연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식제발 사업을 전다. 아울러 “모종의 행동”에 돌입한다.

〈농민활동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9일 고산에서 발표 조사된 신제품 피해 및 보상 실패 결과에 대한 당국의 판에 박은듯한 회신에 따른 성명서 채택 발표, 조사 활동과 결과보고 활동의 계속 및 농촌본당의 의식제발 사업을 지원한다.

〈인권문제에 대한 의식제발 강연회〉는 군산에 이어 정읍·이리·전주 등지에서 계속 하기로 한다-

□ 법률 상담소 설치...교형자매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문제에 대한 상담 및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숲정이 편집실로 서신 문의하시면 정평 인권본과 위원인 백일성 변호사와 교우 변호사들의 조언을 얻어 드립니다.”

요심이 (304) 김병오



사진자료 · 사진기계 · 도산매
칼라필름 ※교형 자매 우대
태 광 사
주 유 가애따노(영문)
전주시 중앙동(우체국 옆)
전화 ⑥ 6346

◆경운기 · 분무기 · 전자동 탈곡기
트랙터 ·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漢文 강의
□ 한시 · 명언 · 한문 · 상식
고사성어 · 3,000자 단기완성 지도
□ 고급반 : 대학 · 논어 · 맹자 · 중용
오후 2시, 8시
□ 아동반 : 오후 4시 · 5시
전주 한문 학원 2-7071
<전주우체국 후문옆 · 신우라사 2층>

주단 · 포목 혼수 이불감 도산매
유진상회
구시장 보화당 앞
이리시 인화동 1가 84
장 완 태(바오로)
전화 : 5821

급 · 은 · 보석 · 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글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여자 사원 모집공고

1. 모집부문 및 인원
부문 : 방직 〇〇〇명 직포 〇〇명
응모자격 : 만 21세미만의 미혼여성
으로 경험자, 무경험자
신장 147cm 이상, 나안시력
1.0이상인 자
2. 구비서류 : 가. 이력서 1통 나.
주민등록등본 3통 다. 증명사진
3매 라. 학력제한 없음
3. 모집기간 : 1979년 5월 31일까지
4. 전형방법 : 면접후 즉일 결정
5. 연락장소 : 전주시 진북2동1144-1
번지, 숲정이 전주교회 ⑥7366
6. 진학희망자는 사내부설 고등학교
에 전원 입학시킴
초임금 입사후 3개월간 5만원
3개월이후 6만5천원
동국 방직 주식회사
(경북 구미시 공단동 267번지
전화 4391~5)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오늘은 예수 승천 대축일(홍보의 날)입니다
1. **교구 사제 총회, 지구 재조정 및 교구장설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구성**
 - ※ 제1지구...현행 "고창·김제·부안·정읍"지구(고창·김제·부안·수류·신태인·원평·정읍...7개 본당)
 - 제2지구... "군산·옥구"지구(대야·둔율동·오룡동·월명동·팔마...5개 본당)
 - 제3지구... "이리·완주"지구(고산·삼례·주현동·창인동...4개 본당)
 - 제4지구...현행 "진주"지구(노송동·덕진·북자·서학동·송정리·전동·중앙·파티마...8개 본당)
 - 제5지구... "임실·순창·남원·완주"지구(남원·상관·순창·임실...4개 본당)
 - 제6지구... "무주·진안·장수·금산"지구(금산·무주·장계·장수·진안·한들...6개 본당)
 - 제7지구... "익산"지구(여산·용안·함열·화산·황등...5개 본당)
 - ※ 준비위원...서용복, 김중걸, 김진소, 김동준, 정태현 신부
 2. **인권강연회 및 민족의 시인 김지하 문학의 밤**...6월 4일(월) 오후 8시, 정읍성당에서
 - ※ 주최: 정읍 천주교회 ※ 후원: 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오태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구리아 옥외행사**: 27일(일) 오전 11시 장소-덕진 민속박물관부지 뒷산
 2. **견진성사**: 3일(일) 공식미사에
 3. **견진교리**: 28일(월)~1일(금) 저녁 8시30분
 4. **성심부녀회**: 1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상관유원지
 5. **성신강림 성가연습**: 30일(수)부터
 6. **경로잔치**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203,875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활인구

1. **애령주일**: 저녁미사 후
 2. **예수승천 야외미사**: 구이 저수지 12시미사
 3. **성모의 밤 및 수요기도회**: 30일밤 8시30분 목주·초·꽃다발 준비
 4. **예비자 특별교리**: 매일밤 8시
 5. **예비자 및 유아세례**: 6월 3일 10시미사
 6. **감사**: 사도회 자체감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75,385원

(노송동)

전화 ④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김성복 사도 회장 김성복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성모의 밤 행사 관계로 시간을 변경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성모의 밤 행사**: 오늘 저녁미사 후 꽃과 초 및 시와 기도를 봉헌합니다
 4. **제3차 성령세미나 개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8일(월)부터 6월 2일까지 매일저녁 8시부터
 5. **미사시간 변경**: 5월 22일부터 저녁미사만 20시로 변경합니다
 6. **재속청년회 월례회**: 다음주 오전 10시~오후5시까지
 7.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매일 분담하여 본당운영에 협조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95,300원

(송정리)

전화 ④7366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이강도

1. **사도회 월례회**: 6월 3일(구역장·반장님 참석 바람)
 2. **오양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예수승천 미사안내**: 주일과 같이 본당에서 집전 성모의 밤 행사 안내: 5월 27일 저녁 8시 본당 성모상 앞, 준비물-각 단체별 화분·꽃다발·축사·축가 신자들의 기도문
- ※ 개인으로는 양초 1개씩 준비 바람
- **지난주 봉헌금**: 150,26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범엽 보좌 신부 김기수 사도 회장 유석중

1. **글라라 형제회**: 오후 1시 30분
 2. **영세식**: 6월 2일 영세자 집중교리: 5월 28일~6월 1일까지 매일 저녁미사 후
 3. **성모의 밤 행사**: 주일학교-30일 오후 8시, 일반-31일 오후 8시
- ※ 준비물-목주·초·꽃다발(화분증정: 단체별)
4. **성화 상영**: 제목-가장 기록한 사랑 (6월 2일 저녁미사 후)
 5. **견진대상자 사무실에 6월 3일까지 접수 바람** 견진일자: 6월 10일
 6. **애프터샷 성금**: 총 시실액-297,000원 성금액-강우혁(20만원), 이종두, 장금태(각 1만원) 유석중, 안득수(각 5,000원) ※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11,789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석종복 사도 회장 유재상

1. **본당·공소학생 체육대회**: 6월 6일(많은 참석 바람)
 2. **유아세례**: 1일(금), 매일 첫째(금) 착오없으시기...
 3.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11시·수요일 저녁 8시
 4. **성모의 밤 행사**: 31일 저녁 8시 준비물-단체 화분·화분·초·목주·기도서
 5. **젊은이들 모임 J.U.C 주최**: 성가연습 학생·직장인·기타 성의를 가지세요
 6. **오늘 공소미사 없음(전당리)**
 7. **청년·학생합동 공소 모내기 봉사활동**: 10일 11시 출발(전당리)
- **지난주 봉헌금**: 30,255원 **교무금**: 123,68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문정현 사도 회장 채수현

1. **성모의 밤 행사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단테-구세주의 모친 Pr, 완 1구역-조메레사, 완 3구역-송모니카·김베로니카·이안나·황모니카 개인-최로사리아·김글라라·김발렌티나·이수산나 합계: 47,500원
 2. **구역미사**: 9일-우진, 16일-효자2가, 23일-에그린
 3. **본당 자체교육**: 6월 1일 저녁 8시 평신도와 교회 공동체(김병영 신부님) 6월 8일 저녁 8시-참, 삶의 길
 4. **견진발오실 분**: 7월 1일 본당에서 견진성사 있음. 견진발오실분 사무실에 등록하시고, 본당 자체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5. **영화 상영**: 6월 2일 저녁 7시30분 "기록한 사랑"
 6. **행가운동**: 1일 오후 2시 영화상영 및 강의
 7. **신용조합 출자금**: 본당에서도 접수합니다 교우분들은 모두 조합에 가입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54,06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성모의 밤**: 오늘 저녁미사 후(슬라이드 상영, 예수 성탄) 목주·초·꽃 지참하세요
 3. **공동체 목상회**: 다음주는 없고 6월 9·10일(제5차)
 4. **주일학교 도서실** 책 기증바랍니다
 5. **부녀회·애령회 월례회**: 6월 6일(수) 오전 10시
 6.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미사 후-허메레사씨 지도 매주(화) 저녁미사 후-박신부님 지도
- **지난주 봉헌금**: 230,765원